

세존(世尊)께서 영산(靈山)의 법상에 오르시니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아무 말씀도 않고 꽃일 하나를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자 다들 의아하게 작우를 불러보는데 오직 한 사람, 가섭(迦葉)존자만이 조용히 미소지었다.

영화미소는 선의 최초의 설법이다. 그런데 말을 통하지 않고 마음으로 전했고 미소로 받았다. 선은 언어와 논리를 통한 적극적(positive) 교설의 방식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꺼린다. 그 이유가 별반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불교는 초기의 가르침에서 아비달마, 특히 대중의 공관(空觀)과 유식을 통해 언어에 대한 우려(lingua-phobia)를 주조해 왔다. 언어를 통해 언어를 지우고자 하는 역설의 노력이 그래서 불교를 둘러싸고 있다. 진실은 유마의 위대한 침묵 속에 있다! 그것을 기술하려는 어떤 시도도 과녁을 빗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의 독특성은 그것은 불이(不二)의 진실을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 직접적 행동으로 구현해 나간 데 있다.

언어를 통한 이론적 변증의 한계와 위험을 깊이 자각한 선은 그 대안으로 독창적 수련의 방식을 마련했다. 다른 어떤 공안의 체계가 그것이다. 공안이란 공문서란 뜻으로, 표준이면서 권위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

한형조 무문관 탐방

5 회두



자신의 공부가 틀리지 않았음을 알고 안도(?)할 것이다. 선은 이 안도를 가로막고 나선다. 눈 앞에 보이는 세계, 상식이 짜놓은 지식에 매몰되어 있는 한 구원은 없다! 청원유신(靑原惟信)의 제2구처럼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것이다.

회두는 일차적으로 승격의 장치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선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조주무자의 경우는 비교적 접점은 편에 속한다. 때로는 모순되는 언설을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하며, 때로는 전혀 불가능한 비현실적 사건을 현실로 제시하고 해답을 요구하기도 한다. 앞으로 강의가 진행되면서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장치는 실로 다종다양하다. 학인은 이런 황당무계와 속수무책에 해결하고 문제 밖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생사의 언덕에서 해마다 가을 생의 윤회를 기다려야 한다.

조주는 단호하게 "없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불교적 교리의 틀 안에서 해결될 전망이 없다. 틀을 벗어나면 그럭저럭 이론적 해결은 하겠지만 존재의 변혁은 꿈꿀 수 없다. 긍정하면 부정하면 우리는 어제의 그 누더기 그대로인 것이다. 깊은 논리와 사유와 상상력이라는 일상적 정신활동의 통로를 봉쇄해야 열린다. 해개는 말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분을 꼽으라면 마하 가섭존자를 빼놓을 수 없다. 가섭존자는 평생 남이 입다 버린 옷만 주어 입었을 만큼 탐욕이 없었으므로 두타제일의 제자로 이름이 높았고 나중에 부처님이 입멸하신 후에는 경전을 결집하는데 책임을 졌을 만큼 영향이 컸다. <잡아함경>에는 가섭존자가 죽지 않고 신동력으로 계속산에 있는 비취를 조견후 그 속에 들어가 미륵 부처님이 세상에 오실때까지 선정에 들어 있는 중이라고 말할 만큼 수행력도 대단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중국 선종에서는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비밀하신 마음법문을 이어받은 유일한 제자라고 추앙한다. 바로 그 유명한 이심전심(以心傳心) 마

삼척진심

한다. 그 세번중 첫번째가 영산 회상에서이다. 영산은 중인도 마가다국의 수도 왕사성 동북쪽에 위치한 산이다. 어느날 부처님께서 이 산에서 설법을 하고 계셨다. 그때 하늘 세계의 범천왕이 금빛연꽃을 하나 꺾어서 부처님께 바쳤는

영산회상-연꽃들어 보임
다 자 탐-자리나뉘 앓음
사라쌍수-관밖 두발보임

法數로 배우는 불교

<15>

부처님은 가섭존자에게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여 이 심전심으로 법을 전했다.

중인도 서쪽 비야리성에 있는 탑이다. 역시 부처님이 한때 이곳에서 설법을 하고 계실때였다. 그때 가섭존자는 거지같은 모습으로 멀리서 수행하다가 늦게 법회에 참석하였다. 많은 대중이 이를 못마땅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은 가섭존자를 부르시더니 자신의 자리의 반을 내어 주시면서 함께 앉자고 하셨다. 이는 부처님의 마음과 가섭의 마음에 차질이 없음을 나타내는 뜻이기도 하였다. 마지막 세번째는 사라쌍수 아래서이다. 사라쌍수는 부처님이 입멸하신 복인도 쿠시나가라에 있는

나무를 가리킨다. 관속에 모셔진 부처님을 화장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관을 옮기려고 했는데 관이 땅에서 떨어지지를 않는 것이었다. 경전에서는 삼수제자인 가섭존자가 다른 지방에 멀리 있어서 부처님의 장례에 참석하지 못했으므로 부처님이 가섭존자를 기다리시느라고 신동력으로 관이 움직이지 않았고 고 한다. 늦게 돌아온 가섭존자는 부처님의 입멸을 애중했다. 한때 부처님의 두발이 가섭존자를 향해 관 밖으로 가지런히 나오게 하는게 아닌가. 가섭존자는 부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었다.

부처님의 육신은 멀해도 진리의 몸인 법신은 상주불멸한다. 그 상주를 결하는 법신을 가섭이 또 받은 것이다.

세번에 걸친 이러한 일로써 가섭존자는 선종의 맨처음 조사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는 식의 법문은 28대에 걸쳐 달마대사까지 내려오게되었고 달마대사는 다시 중국에 전해져 왔다. 우리 나라의 선종도 물론 여기서 기인되었음을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제 열 <유마선원장>

사유 통로 봉쇄 "밖으로 나와 보라"

조사관문 뚫는 충격장치...막다른 골목서 큰길 만나

용어는 지나치게 근엄하다. 거기에는 선이 불교의 주변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해나가야 했던 역사의 흔적이 들어 있다. 그래서 나는 화두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 좋지 않은가. 그냥 '이야기' 그 덩어리고 밋밋한 단어는 선의 이념인 일상의 무공용(無功用)과 무기득(無奇特)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회두는 이야기이다. 좀 더 한정하자면 깨달음의 기원이 된 특별한 이야기이다. 이것이 선의 수련을 위한 방편으로 학인에게 제시되었다. 후기 선은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선의 비밀에 접근할 수 없다고 극언한다. 그래서 무문은 "선을 공부하자면 조사가 세워 놓은 관문을 뚫어야 한다(參禪須透祖師關)"고 서투를 열고 있다. 그럼 이 관문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무문의 자상하고 친절한 지시(指示)도 준비가 없는 초심자에게는 막막한 권유같아 보인다.

학인은 조주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냐고 물었다. 불교교리의 역사에 익숙한 사람은 이 질문의 의미를 알 것이다. 초기 불교는 여자나 일천제(一闍提)에게 성불을 유보했는데, 대중은 공즉시색(空即是色), 색즉시공(色即是空)이라 유정(有情) 무정(無情)에 관계 없이 불성(佛性)은 편재한다고 선언했다. 사정이 그렇다면 학인의 질문에 합당한 대답은 "아무렴, 불성이 있지"여야 한다. 그 대답에 학인은

했다. "깨달음을 얻자면 모든 생각의 길목을 차단해야 한다(妙悟要斷心路絕)." 아직 생각을 끌리거나 이로(理路)를 더듬고 있다면, 즉 주저하고 머뭇거리면 화살은 이미 서서 저편으로 가버리고 몸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 그리하여 학인은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밀어넣어졌다. 이 갑박한 절벽, 어두운 침통을 어떻게 타파해나갈 것인가. 의식적 모색의 길이 막힌 에너지는 압축되면서 무의식의 심층으로 내려간다. 수직으로 내려가는 에너지는 집중의 강도에 비례하고 표면적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마음이 산란하고 분산되어 있으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다. 전신의 에너지를 끌어모아 지속적으로 파지하면 의식과 욕망에 의해 분리된 에너지가 점점 무의식에서 통합되어 나간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솟발에 불이 켜지듯 "안과 밖이 하나로 합쳐지는(自然內外打成一片) 순간이 온다. 그것은 자연스럽지만 존재의 대전환을 알리는 경천동지(驚天動地)이다. 해개는 그 경험을 "마른 하늘에 바람이 때리고 대지의 초목군생이 화들짝 놀랄" 만큼 급격한 존재의 카타스트로피라고 증명했다. 그 경험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그런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적절한 언어로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흡사 "병어리가 곧 꿈과 같은" 것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부처님 가섭에게 마음으로 법 전달

음으로써 마음을 전함)의 주인공이었다. 인도에서 만들어진 근본경전에는 나와있지 않고 중국 선종에서 후에 지어낸 <불설 범천왕문 결의경>이라는 경을 보면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세번에 걸쳐 말씀으로써 하신 법문이 아닌 부처님 마음 그 자체를 비밀되게 따르히 전해 주었다고 한다. 이것을 말씀 밖으로 따로 전했다고 해서 교외별전(教外別傳), 혹은 기존적 가르침의 틀을 벗어나 마음으로 직접 전했다고 해서 격외선전(格外傳傳)이라고도

데 부처님께서 그 뜻을 들어 묵언히 설법을 들던 대중들에게 보였었다. 모든 대중들은 부처님의 이와같은 행위에 어리둥절 하기만 했다. 오직 한사람 가섭만이 그 뜻을 알아 채고 빙그레 웃을 뿐이었다. 이에 부처님은 가섭을 향해 "여래에게 바른 법의 눈과 열반의 묘한 마음이 있으니 형상 아닌 참모습이라. 미묘한 법문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이니 교(教) 밖에 따르히 가섭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하셨다.

두번째는 다자탑에서다. 다자탑은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의 계산법이 있으며 계산법에 따라서 결과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연기의 입장에서 하는 계산법은 위의 3가지 계산법 중에서 마지막 멱수법이다.

가령 하나의 현상이 10개의 요인에 얽혀 나타나고, 또한 저마다의 요인에 대해서 각각 10개의 요인이 있다면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그 연기의 요소를 두 단계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10 \times 10 \times 10 \times 10 \times 10 \times 10 \times 10 \times 10 = 10^{10}$ 즉 10,000,000,000 즉 100억의 요인이 있다. <법화경>의 "중지용출품"에서는 6만 항하사라는, 갠지스 강의 모래알만큼이나 많은 수라는 비유가 나온다. 이런 엄청난 수도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몇대 전의 인연과 나를 중심에 두고 앞으로 전개될 인연의 수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한 삶을 탄생시키는 데 엄청난 연기의 수가 어찌 10개뿐인가! 나의 탄생은 바로 이렇게 엄청난 인연의 수에 의한 것이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엄청난 무한을 알게 될 때, 세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또 세계의 모양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따지게 된다. 불교철학은 한 대상을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수를 등장시킨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불교와 수학

8 大數와緣起

김용운

지난 주 본란에서 불교 경전에 엄청난 수, 아승기경(阿僧祇劫), 항하사(恒河沙), 무량대수(無量大數) 등이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불교는 분명히 수학은 아닌데 왜 이처럼 엄청난 수를 다루게 되었을까?

그것은 불교의 기본적 사고방식이 '연기(緣起)'에 있기 때문이다. 가령 '나'의 존재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여러 얽히고 설친 인연(緣起)이 있다. 이 사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입장에 국한해서 생각해 보아도 엄청난 수가 필요함을 금방 알 것이다.

실제로 나를 태어나게 한 조상의 수를 어렵으로 계산해 보자. 우선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났다. 나의 부모에게는 각각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며 또 그 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조부모가 계신다. 이렇게 4대(代)만 거슬러 올라가도 $2^4 = 1,099,511,627,776$ 1조995억1천162만7천776명이나 된



<표>

무량한 인연 모여 '나' 탄생

다. 잠깐 <표>를 보자. 1대를 평균 30년으로 생각한다면 불과 1200년 전(前)의 일이다. 40대전 1,099,511,627,736(약 1200년 전) 30대전 1,073,741,824(약 900년 전) 20대전 1,048,576(약 600년 전) 5대전 16 4대전 8 3대전 4 2대전 2 나 이와 같이 한 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록 급속히 그 수가 증가하는데 이것을 '멱수의 마력'이라 한다. 가장 계산하기 쉬운 수 체계는 일, 십, 백, 천...이라는 식으로 한 단위가 10개씩 모아질 때마다 한 단계씩 올라가는 10진법이다. 10진법은 곱셈에서는 1만 불이만 되므로 계산하기가 쉽다. 10을 중심으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10+10=20$ (덧셈) (2) $10 \times 10=100$ (곱셈) (3) $10^3=1000000000$ (멱수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0을 두고 계산하는데도 덧셈, 곱셈, 지수법 등

멱수법으로緣起세계 풀이

10을 중심으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10+10=20$ (덧셈) (2) $10 \times 10=100$ (곱셈) (3) $10^3=1000000000$ (멱수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0을 두고 계산하는데도 덧셈, 곱셈, 지수법 등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듯이 배우는 것은 물건을 옮기는 것이요 지혜로 터득하는 것은 유무를 옮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워도 그를 행하지 않으면 이 책은 무용지물이라 - 서문중에서 -

불교 교양대학 입문(교재)

불교, 절(寺)에 대한 바른 이해

청암스님께서 각 사암에 불교 교양대학을 개설 하시는 스님, 그리고 불교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쉽게 접할수 있도록 펴낸 교재입니다.

96년 6월 17일 초판 발행 현재 6차 출판

- ◆ 이 교재는 각 사암에서 주 1~2회로 3, 4, 5, 6개월 코스로 강의 할 수 있는 불교 교재입니다.
- ◆ 이 교재는 불교를 알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아주 쉽게 불문에 귀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이 교재는 불교 예법부터 불교건축물, 기초교리 반야심경 강의 까지 손수 그림과 함께 강의한 것입니다.
- ◆ 이 교재는 청암스님께서 직접 95개의 건물, 불상까지 자세히 편집되어 있습니다.
- ◆ 이 교재로 혹은 사암 스님께서 강의 하신다면 교재걸 필기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페이지마다 메모 할수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 ◆ 이 교재는 스님이 강의 하지 않아도 불교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 ◆ 이 책은 법보시 용으로 구입 하셔도 됩니다.
- ◆ 이 교재는 전국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 ◆ 이 교재가 한권이라도 필요하여 주문하시면 즉시 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 만약 다량으로(50권) 주문 하시면 택배로 신속히 보내드리며 권당 1,200원을 할인합니다.
- ◆ 청암스님께서 이 책의 작은 이익금은 금하선원 어린불자들을 부처님께 참배 시키는데에 쓰신답니다.
- ◆ 많은 스님께 합장 하옵니다.

저희 청암스님의 맘 흘리는 모습은 비오는날 연잎에 티 없는 물방울과 같습니다.

정가 : 6,200원

주문 문의 전화 : (02)445 - 3261 FAX : (02)445-3267 대한불교 조계종 금하선원 총무부